

■소설 심사평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당선작을 내는 데 실패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다섯 편이었는데, 대부분 소설 창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심지어 문장 연습이 덜 되어 있는 작품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통해 하려고 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너무 희미하거나 아예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소설에 대한 접근이 좀 피상적인 것 같다는 인상을 대부분의 응모작에서 받았다.

아들의 죽음과 남편의 사라짐, 그로 인해 죽음에 이끄러는 상황을 흡연 욕구와 연결시켜 쓴 '담배를 피다'는 서술이 화자의 자기투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고, 인물의 행동에 납득할 만한 개연성을 찾기 어려웠다.

기묘한 부부 관계를 보여준 '미늘'은 흥미롭게 시작하지만, 곧 이야기의 흐름이 뒤엉키면서 방향을 잃어 버렸다.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괴상한 취미의 아내라는 인물은 독특하지만 그 인물을 이해시킬만한 능력이 이 작가에게는 없

어 보인다. 상투적이고 엉성한 마무리도 거슬렀다.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케이크와 함께 배달되어 온, 같이 그려진 종이를 두고 소동을 벌이는 '모카케익'은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은 작품이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사건에 대한 해명을 끝까지 유보하고 있으며, 문장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지녔다.

신기한 사건을 소설에 불러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수습의 과정. 소설 쓰기는 그 수습의 과정을 그리는 것이다.

'On-Air'는 현재의 상황과 가상공간에서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양궁 경험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

되도록 당선작을 내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응모작들의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당선작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응모작들과 함께 아쉬워하며 문학 지방생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본심 5편 수준 못 미쳐 당선작 못내

창작에 대한 이해·문장 연습도 부족



이승우

▲서울신학대 졸 ▲1981년 한국문학 신인상 수상작 '에리직톤의 초상'으로 데뷔 ▲1993년 제1회 대산문학상, 2002년 제15회 동서문학상, 2006년 현대문학상 수상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생의 이면', '식물들의 사생활', '태초에 유혹이 있었다' 등 작품집 다수.



성석제

▲연세대 법학과 졸 ▲1986년 계간지 '문학사상'에 소설 '우리닭은 사람'으로 등단 ▲1997년 제30회 한국일보문학상, 2000년 제13회 동서문학상, 2001년 제2회 이효석 문학상, 2002년 제33회 동인문학상, 2003년 제49회 현대문학상, 2005년 제13회 오영수문학상 수상 ▲'참말로 좋은 날', '황민군은 이렇게 말했다' 등 작품집 다수.

나를 낳고 키워 준 바다
바다의 생명력을 꿈꾸며

■동화 당선소감



김 순 아

▲1973년 여수 출생
▲광주대 문예창작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어렸을 적에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다. 조개도 캐고 고둥도 잡고 굴도 캐고, 운이 좋으면 커다란 소라를 잡기도 했고, 해삼을 잡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바다에 대해 무한한 동경을 품었다. 출렁거리는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을까? 저 푸른 바다 끝, 수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여전히 바다를 동경한다. 지척을 떠나 위도가 필요할 때 배에 올라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 가슴이 시원해진다. 불이 얼얼하도록 바다 바람을 맞고 나면 용기가 생긴다. 새로운 꿈을 꿀 자신이 생긴다.

아이들은 귀엽거나 아니면 말쑤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동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달리 보게 되었다. 아이들이 가진 생명력과 함께 그들의 고통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물질적으로 풍족해졌다고 해서 결코 삶의 무게까지 가벼워졌다고 볼 수 없다. 삶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른들이 피땀 흘리는 것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의 삶도 치열하다.

학교, 학원, 과외..... 해가 뜨기 무섭게 집을 나서서 컴컴한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짙어 나온다.

나는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편한 숨을 쉴 수 있는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 내가 쓰는 동화가 그 바다로 가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 소식을 듣고 나보다 더 기뻐해준 부모님과 내 동생들, 광주대 교수님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과 광주일보사에게는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

'반전' 없는 자연스러운 전개

주제 의식·문장 구성 돋보여

■동화 심사평

원고를 쌓아두고 작품마다 한 장 또는 두 장씩 읽어내었다. 원고지로 치면 5~10매 분량이다. 한 눈에 반한 작품은 없었다. 대신 10편 정도 훑혀져 나왔다. 힘들게 쓴 작품을 다 읽지도 않았으며 책 말할 수도 있지만 첫 문장에서, 첫 장에서 읽는 이의 마음을 빼앗지 못한 것으로 이미 커다란 흥미를 갖는다.

결러진 작품은 꼼꼼히 읽어 다섯 편으로 좁혔다. '도마소리'(임지형)는 엄마의 죽음을 다뤘다. 주인공이 아픔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모습만 보여준 건 가장 큰 흠이었다.

'망와 속'에 사는 꼭비(장은영)는 판타지 작품이었다. 판타지는 다른 세상으로 진입할 때 독자도 두근거리며 함께 빨려들어 가야하는데, 비포장 도로를 달리듯 덜컥, 거렸다. '게임기'(박정희)는 이야기의 열개가 너무 단조롭고 모범답안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물의 비밀(조주희)'은 설화에서 이야기를 끌어냈다. 흥미롭게 읽었는데 뒷심이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불쑥 나타난 민석이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슴도치의 섬(김순아)'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이런저런 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작품에 비해 문장이 탄탄했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었다. 어려운 현실을 무리하게 전복시키려하지 않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찾아냈다. 무엇보다도 제목부터 다른 응모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의미를 담았다.

심사를 하면서 받은 전반적인 느낌은, 쓰기 전에 먼저 주제의식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왜 이 글을 쓰는데?' 라는 질문, 한없이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다. 평생 글을 쓰기로 맘 먹었다면 당선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응모자 모두 더욱 좋은 글쓰기를 바란다.



김성범

▲광주대 예술대학원 졸 ▲200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제58회 아동문학평론 신인상(동시 부문), 제3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우수상 수상 ▲국립종합예술단체 '섬진강 도깨비마을' 총장 ▲'숨쉬는 책, 무익조' '비밀로 가득 찬 세상' '도깨비 살' 등 다수.

시

구두 수선공

최일걸

그는 구두 밑창에 겹겹이 달라붙은 길들을 더듬는다 뒤엉킨 길들을 풀어놓으려 그의 손마디가 저릿하다

시한폭탄을 해체할 때처럼 진땀나는 순간, 자칫 잘못 건드리면 길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서거나 뽀박질이 그의 심장을 짓밟고 지나갈 것이다 자꾸 엇박자를 놓는 길과 걸음이 구두를 망가뜨린다

구두란 길과 걸음의 교차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걸음과 길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기 전에 그는 먼저 숨을 고른다 쉽 없이 구두 뒷굽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길, 막바지로 구두를 몰아세우는 걸음걸음, 그를 여기까지 내몬 것은 길도 걸음도 아니었다

구두방 선반 위에서 번득이며 광휘를 뿜어내는 구두가 시치미를 떼고 돌아앉는다 그는 어긋난 길들을 구두에서 삭제하고는 도통한 밑창으로 새로운 길을 포장한 다음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한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세상에서 굽의 높이를 조정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못이 박힌 손으로 나달나달 떨어진 날들을 그는 차츰 지워지고 실밥이 그를 대신하여 툭툭 빠져나온다

보행을 손보는 일은 손님의 몫이지만 그는 시선을 끈겨 퍼서 손님의 종종걸음을 떠받친다 그의 뼈마디가 시큰거리다가 어긋난다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 노래하고 싶어

■시 당선소감



최 일 걸

▲1967년 전북 진안 출생 ▲전주 우석대 중퇴 ▲199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등화,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당선

예기치 않은 당선 통보였기에 지각변동만큼 충격이 컸다. 그 충격과는 나의 전 생애를 고스란히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돌이켜 보면 눈물이 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부모님께 귀한 지면을 빌려 따스한 사랑을 전한다. 나의 어머니는 지방 화단에서 활동 중이시다. 어머니는 교육자의 길과 어머니라는 말뚝에 묶여 있었기에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하셨다. 하지만 지금도 어머니는 붓을 놓지 않고 매일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시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계신다. 어머니의 재능과 열정이 온전히 나에게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나의 아버지의 끈기와 집념이 내 생애 근간이며 나의 추진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의 문장은 어떠한 한계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당선 영광은 나의 몫이 아니고 부모님의 몫이다. 몇 달 전에 저 세상으로 가신 외할머니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농토에 생산된 쌀로 오늘도 시를 짓고 있다. 밤 한 공기의 따스함으로 늘 내 곁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두런거림에 귀 기울여본다.

시는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다. 세상에 그늘진 곳을 밝히는 시를 쓰고 싶다. 언제나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 아픔을 노래하고 싶다.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시어로 형상화하여 하나의 세계로 견고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 부족한 시를 너그러게 풀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시를 쓰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나의 반쪽인 아내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지금 나는 아들 진후의 첫걸음을 향해 열려 있다. 일 년 동안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명의 강인함을 배웠다. 아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을 돌아가고 싶다.

꼼꼼한 관찰·묘사
시적 가능성 충분

■시 심사평

올해는 응모작이 줄어서인지 본심에 올라온 16편의 작품을 읽으며 전반적으로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 그 중에서 정영희, 김효준, 최일걸 등의 작품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다.

정영희의 시는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세련되고 날렵한 반면, 의미구조가 취약하거나 모호한 게 흠이었다. 구체적 언어와 추상적 언어를 교차하는 것이 일종의 낯설게하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정영희의 시에서는 그 연결이 순탄치 않거나 진술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패닉의 바다', '소나무역'처럼 유니크하고 일정한 스케일을 지닌 시를 결국 내려놓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시적인 새로움이란 표현의 참신함뿐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확장되는 의미의 깊이에서 온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그에 비해 김효준의 시는 다소 거칠지만 시상을 밀고 나가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박쥐의 서곡', '구름공장', '닭' 등 가족의 고단한 삶을 동화적 비유나 우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내고 있는 김효준의 시들은 간명하고 발랄한 대신 시적인 복합성이나 여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소재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을 좀더 다채롭게 변주할 수 있다면 좋은 시인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당선작으로 뽑은 최일걸의 시들은 강렬하지는 않아도 꼼꼼한 관찰과 묘사를 통해 대상을 인상적으로 각인해낸다. 묘사 중심의 시들이 지닌 답답함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답답함을 극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선작인 '구두 수선공'에서도 "구두 밑창에 겹겹이 달라붙은 길들"을 읽어나는 그의 시선은 작은 움직임들 통해 시간과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구두란 길과 걸음의 교차점"이라는 인식을 이끌어낸다. 그 외에도 정육점, 후미진 골목 등 번두리적 삶의 풍경들을 주로 보여주는 그의 시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칼날을 지니고 있다. 당선을 계기로 그 칼날이 더 예리하고 정확하게 삶의 어두운 환부를 베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나희덕

▲연세대학원 국문학 박사 ▲1989년 '중앙문예'에 '뿌리에게'로 등단 ▲1998년 제17회 김수영문학상, 2001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3년 제48회 현대문학상, 2005년 제1회 일연문학상, 2007년 제22회 소월시문학상 수상 ▲'뿌리에게', '반딧불의 물', '사라진 손바닥' 등 작품집 다수.



이문재

▲경희대 국문학과 졸 ▲1982년 '시운동'에 '우리 살던 옛집 지붕'으로 등단 ▲1995년 김달진문학상, 1999년 제4회 시와시학 젊은 시인상, 2002년 제17회 소월시문학상, 2005년 지훈문학상, 2007년 제7회 노작문학상 수상 ▲'마음의 오지', '산책시편', '제국호텔' 등 작품집 다수.